

KIA, 6위 삼성에 완패...5위 '위태'

KIA가 포스트시즌 행 막차를 놓고 삼성과의 맞대결서 5-20으로 패했다.

KIA는 이날 패배로 삼성과 1경기 차이로 쫓기게 됐다.

KIA는 가을야구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을 결정하는 6경기 중 2연패를 기록해, 5위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KIA는 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경기에서 5-20으로 패했다.

이날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오른 요구리 통증으로 3회 교체됐다. 2-0으로 앞서다가 동점을 허용한 3회말에 계속된 2사 1, 2루 위기에서 이원석에게 3점 좌월 역전 홈런을 얻어맞을 때 투구 후 요구리 통증을 호소, 결국, 4회에는 황인준으로 교체됐다.

양현종은 이날 성적은 3이닝 7안타(2홈런) 4탈삼진 5실점을 기록했다. 직전 등판 경기였던 지난달 27일 잠실 LG 트윈스전에서도 4이닝 7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했지만 3이닝은 올 시즌 양현종의 최소 이닝 투구 기록이다.

5위 싸움에 사활을 건 KIA로서는 양현종의 몸 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KIA는 이날 2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한 이명기도 오른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선수 보호 차원에서 2회말 수비부터 유재신으로 교체됐다.

삼성은 4회말 박해민의 2타점 3루타와 김상수의 적시타를 앞세워 8대2로 달아났다. 5회말에는 8안타와 볼넷 2



3일 오후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 경기 8회초 1사 1루에서 KIA 박준태가 투런 홈런을 쳐 홈을 밟은 후 선동주자 유민상과 대기타석 최원준의 환영을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양현종, 요구리 통증으로 3이닝 만에 교체 5실점 SK·두산과 4연전 앞두고 선수부상 등 악재 겹쳐

개, 몸 맞은 공 2개를 묶어 대거 11점을 뽑아 사실상 승부를 끝내버렸다. 삼성은 6회말 1점을 더 보냈다.

KIA도 타선에서는 유재신이 2타점 적시 2루타를 치며 1안타 2타점을 기록했고, 박준태가 홈런 포함 2안타 2타점을 만들었다. 최원준이 1안타 1타점을 더하며 점수를 뽑았지만 승부를 뒤집기는 어려웠다.

양현종은 광주로 이동해 4일 팀 지경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을 계획이다. 검진 결과에 따라 등판 여부와 1군 엔트리 잔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5위 싸움을 하고 있는 KIA로선 큰 악재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양현종은 다음주에 한차례 더 선발등판을 하고 팀이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간다면 1차전에 나서야하는 KIA가 가장

믿는 에이스였다.

5위 KIA는 가을야구 막차 티켓을 거머쥘 유력한 후보였다. 그러나 2일 NC에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역전 패, 6위 삼성에 패하며 5위 싸움은 정규리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알 수 없게 됐다.

KIA는 삼성에 1경기, 롯데에 2.5경기 차로 쫓고 있다. KIA는 9경기, 삼성은 3경기, 롯데는 10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KIA는 4일부터는 인천에서 SK와 3연전을 갖고 7일에는 잠실로 옮겨 두산과 경기를 갖는다. /황애란 기자

류현진, NLDS 1차전 선발 출격 4년만에 가을잔치 마운드 올라

'가을 승부사' 류현진(31)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포스트시즌 첫 경기 선발투수로 출격한다.

다저스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벌이는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1차전 선발투수로 좌완 류현진을, 2차전 선발투수로 클레이턴 커쇼를 차례로 내세운다고 3일(한국시간) 발표했다.

다저스는 지난 2일 타이 브레이커 경기에서 콜로라도 로키스를 제압,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확정하며 NLDS에 진출했다.

다저스는 오는 5·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5전 3승제 NLDS 1·2차전에서 애틀랜타와 맞붙는다.

당초 다저스는 NLDS 1차전 선발로 사이영상 3회 수상자인 커쇼를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커쇼는 다저스의 부동의 에이스이자 1선발 투수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NLDS 1~2차전에 클레이턴 커쇼, 류현진 순으로 선발 등판하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보는 대로"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규시즌 마지막 3차레 등판에서 모두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로 호투하며 3연승을 달리고 팀의 지구 우승에 발판을 놓은



류현진의 가을 기세에 커쇼가 1선발 자리를 양보하게 됐다. 올해 정규시즌에서 커쇼는 9승 5패 평균자책점 2.73, 류현진은 7승 3패 평균자책점 1.97을 기록했다.

류현진은 2013년과 2014년 포스트시즌에 총 3경기에 등판, 16이닝 5실점에 1승 평균자책점 2.81을 기록하며 가을야구에 강세를 보였다.

애틀랜타 상대 포스트시즌 등판은 2013년 NLDS 이후 처음이다. 류현진은 포스트시즌 데뷔전이었던 이 경기에서 3이닝 6피안타 4실점으로 흔들렸다.

류현진은 2014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NLDS 이래 4년 만에 가을 잔치 마운드에 선다.

류현진은 지난달 29일, 커쇼는 지난달 30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정규시즌 마지막 선발 등판을 하고서 각각 5일 휴식한 뒤 포스트시즌에 출격한다.

류현진은 사타구니 부상에서 돌아온 뒤 대부분 5일 휴식 후 등판하면서 8·9월 평균자책점 1.88의 호투 행진을 벌였다. /연합뉴스

오승환, 한미일 PS 석권

와일드카드 경기서 1⅓이닝 무실점 콜로라도, 컵스 꺾고 NLDS행 진출

오승환(36·콜로라도 로키스)이 생애 첫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PS) 무대를 무실점 투구로 장식했다.

오승환은 3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WC) 결정전에서 1-1로 맞선 연장 10회말 등판, 1⅓이닝 무피안타 2볼넷 1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오승환이 팽팽한 연장 상황을 무실점으로 지탱한 이후 콜로라도가 연장 13회초 추가점을 내면서 컵스를 2-1로 꺾었다.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진출권이 걸린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에서 승리한 콜로라도는 이제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이동,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 밀워키 브루어스와 5일부터 5전 3승제 NLDS를 벌인다.

오승환은 한국인 최초 한미일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출전 기록도 완성했다.

오승환은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에서 2005·2006·2011·2012·2013년 총 5차례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일본 한신 타이거스에서 뛰던 2014년에는 일본시리즈 무대를 밟았다. 2015년에는 팀이 클라이맥스시리즈에 출전했으나, 오승환은 부상 탓에 결장했다.

오승환은 2016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계약하면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가을야구에 초대받은 것은 콜로라도로 이적한 올해가 처음이다.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첫 이닝을 14구 만에 삼자범퇴로 막아냈다. 선두타자 벤 조브리스트는 유격수 땅볼로 잡았다.

오승환은 다음 타자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3루수 놀런 에러나도의 호수비로 땅볼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 고어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연장 10회말을 끝냈다.



오승환(콜로라도)이 3일 열린 시카고 컵스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팀의 4번째 투수로 등판해 1⅓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연합뉴스

1-1이 이어진 11회말에도 등판한 오승환은 첫 타자 하비에르 바에스를 볼넷으로 내보내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다음 타자 엘버트 알모라 주니어는 3루수 희생번트로 1사 2루를 만들었다.

대니얼 머피를 고의사구로 거르면서 오승환은 1사 1, 2루에 놓였다. 다음 타자 윌슨 콘트라라스는 3루수 땅볼에 그쳐 2루 주자 바에스가 태그아웃을 당

했다. 2사 1, 2루에서 오승환은 크리스 러신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러신은 빅터 카라티니를 1루수 땅볼로 잡으며 이닝을 끝냈다. 타이브레이커에서 나란히 패해 와일드카드로 밀려난 양 팀은 와일드카드 경기에서도 연장까지 가는 혈투를 벌여 가을야구 열기를 후끈 달궜다. /연합뉴스



4일부터 나흘간 인천 짙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리는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총상금 160만 달러)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 유소연(왼쪽부터), 전인지, 김인경, 박성현. /연합뉴스

박성현-김인경·유소연-전인지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만과 1차전 출전

여자골프 국가대항전인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첫 우승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이 박성현(25)-김인경(30)과 유소연(28)-전인지(24) 조로 첫날 경기를 치른다.

올해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4일부터 나흘간 인천 짙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펼쳐진다.

대만, 호주, 잉글랜드와 A조에 편성된 우리나라는 4일 대만과 경기를 시작으로 5일 호주, 6일 잉글랜드와 차례로 맞붙는다. 조별리그 경기는 2인 1조의 포볼(두 명이 각자의 공으로 경기해 더 좋은 성적을 그 팀의 점수로 삼는 방식) 매치 플레이로 진행된다.

B조는 미국, 일본, 대만, 스웨덴으로 구성됐으며 각 조 상위 2개국씩 최종일

싱글 매치플레이 경기에 진출한다. A조와 B조 3위 팀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러 이긴 나라가 최종일 경기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4일 오전 10시 45분 박성현-김인경 조가 대만의 캔디 쿵-피비 아오조를 먼저 상대하고 이어 오전 11시부터는 유소연-전인지 조가 테레사 루-쉬웨이링 조와 맞붙는다. 5일 호주와 경기에는 다른 조합을 구성해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회 대회에서 3위, 2016년 2회 대회에서 2위를 각각 기록했다. 앞선 두 대회는 모두 미국에서 열렸으며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올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첫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벤투호 "우루과이 6연패 끊어라"

역대 A매치 1무 6패...12일 서울서 경기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12일 상암벌을 뒀을 물결로 가득 메울 홈팬들의 응원 속에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6연패 사슬을 끊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 축구는 역대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에서 우루과이와 7번 만났

지만 1무 6패를 기록하며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특히 1982년 인도 캘커타에서 열린 네루컵에서 정해원과 장외룡의 득점포를 앞세워 2-2로 비긴 이후 6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2기 대표팀에는 손흥민, 기성용이 포함됐고, 우루과이

도 한국에 뼈아픈 패배를 안겼던 수아레스와 카바니가 25명의 원정 엔트리 에 이름을 올렸다.

우루과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위의 강팀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8강에 올랐지만 우승팀 프랑스에 0-2로 패했다. 수아레스와 카바니가 주축인 공격진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FIFA 랭킹 55위 한국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상대이면서 벤투호 출범 후 만나는 최강팀이다.

벤투 감독은 2기 소집 명단 발표 기자

회견 때 "우루과이는 매우 강하고 좋은 선수들로 구성돼 있고 우루과이 선수들은 큰 무대에서 뛴다"며 "질레전처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질레전처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우루과이전 패배의 기억이 남아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입장권이 이미 매진된 가운데 벤투호가 '전적' 우루과이를 상대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임성재, PGA 투어 주목할 신인 선정



임성재(20)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8-2019시즌 가장 주목할 신인으로 지목됐다.

PGA 투어는 3일(한국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8-2019시즌 지켜 봐야 할 신인 10명을 소개했다. 임성재는 가장 먼저 거론되며 "PGA 투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는 평을 들었다. 임성재는 올해 PGA 2부 투어인 웨트컴 투어에서 활약하며 두 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